

<2022년 8월 17일 수요일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구원’같이 큰 것이 없으니,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육신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육신이나 영혼이나 죽을 때마다 살려 줘야 살 수 있나니,
육과 영을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절대 믿고 살아가라.

[요한복음 3장 16-19절]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 <잠언>으로 보냈어도 잠언을 연결하거나,
혹은 중간에 해당되는 몇 마디 말들을 넣어서 ‘설교식’으로 전하기.

1.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믿어 줘야 한다.
2. 하나님이 보냈어도 어떤 사명으로 보냈는지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
3. 보냄을 받고 사명을 하는 자의 육만 보지 말고, ‘그를 보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알아야 한다.
4. 육신만 알면, 육적인 신앙이 된다.
5. <세상을 구원하라고 구원자를 보내신 절대신>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6. <전능하신 성자>가 ‘땅의 육신을 가진 자’를 쓰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역사를 하신 것이다.
7. <구원의 근본자>는 ‘삼위일체’ 이시다. 삼위일체는 시대를 따라서 이 땅에 ‘육신 가진 자’를 보내어 구원역사를 펴게 하셨다.
8. 세상을 ‘구원’ 하러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9.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사탄을 이겨야 된다.
10. <구원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11.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신앙과 구원의 기본이 되는 말씀’ 이 또 있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 이 말씀과 같이 <구원자>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사망권에서 나와서 부활된다.
12. <구원>은 ‘구원자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이 함께하신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13.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낸 자>가 크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하다.
14. <보냄을 받고 사명을 하는 자>만 믿지 말고, <그를 보내신 근본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15.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보낸 자’ 를 증거하며, 그가 누구인지 말씀해 준다.
16. <보내 준 자>는 ‘자신이 보내어 사명을 하는 자’ 와 함께하며 각종 역경에서 도와주면서 보낸 자를 구원하신다.
17. 누가 보냈는가 온전하게 깨닫고, 보낸 근본자와 일체 되어 행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행하는 육적인 자’ 가 된다.

18. <구원역사>는 ‘구약 - 신약 - 이 시대 역사’ 다. 이전 역사의 터전 위에 새 역사가 세워진다. 그러나 <구원의 차원>은 각각 다르다.
19. <하나님>만 믿으면 ‘종 차원의 구원’ 이 이루어지고 (=구약),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 차원의 구원’ 이 이루어진다(=신약). 이 시대는 <다시 오신 성자>를 맞고 ‘하나님의 창조목적’ 을 이루었으니 ‘신부 차원의 구원’ 이 이루어지고 있다.
20. <구원>에는 ‘육신 구원’ 과 ‘영혼 구원’ 이 있다. 이 구원은 매일 연속되어야 한다.
21. <구원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구원’ 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 주신 ‘삼위일체’ 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행할 것을 행하며 삶의 구원을 이뤄야 <육신 구원>도 <영혼 구원>도 이루어진다.
22.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역사>가 ‘지속’ 되어야 ‘육’ 도 ‘영’ 도 살아서 존재하게 된다.
23. <구원의 삶>은 ‘매일 필요’ 하다.
24. <더 좋은 구원>을 받기 위해, 더 수고하고 더 행하고 더 충성하는 것이다.

25. 저마다 육도 영도 더 이상적인 구원을 이루도록, 매일 구원자와 삼위일체와 구원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매일 자기 모순과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26. <더 좋은 구원>을 이루도록, 저마다 깊은 기도를 하여 ‘자신을 점점’ 하고 ‘자신’에 대해 깨닫고 알고 제대로 행하여라.
27. 기도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자기’를 깨닫게 해 주신다.
28.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화평하게 하여라. 분쟁하면 제대로 못 한다. 섭리사 모두 스스로 분쟁하지 말아라. 화평하게 하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사탄은 스스로 분쟁하게 한다. 사탄과 불신의 세계는 스스로 분쟁하여 서지 못한 것이다. 화평하게 함으로 더 좋은 구원을 이루어라.
29. 항상 어떤 뜻과 어떤 입장에서 그 같은 말을 했는지, 성경을 읽고 깨달아라.
30. 누구에 대해 증거한 것인지,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행해야 된다.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행하면,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바로 깨닫게 해 주신다. <성경의 주인>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31.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32. <구원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구원하신다. 고로 구원자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33.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을 책임’을 해야 된다. 회개하고, 의롭게 하고,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를 보내신 근본자를 믿어라.
34.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구원하신다.
35. <구원해야 될 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어라. 그 기도는 결국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 육과 영이 구원받아야 될 때’에 도움이 된다.
36. <공홀이 없는 자>는 ‘공홀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37. 구원받았다고 태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38.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은 자>만 구원받은 것이다.
39. <이 시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행한 자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40.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구원받지 못하면 <육>도 사망권에서 살게 되고, <영>은 영원히 지

속되는 고통과 괴로움의 지옥에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구원해 주시는 삼위와 구원자>에게 감사하여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특히 지금까지 지속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라. <육신의 죽음>에서 <영혼의 죽음>에서 수없이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생각하며, 매일 감사하며 살아라.